

대학생들의 연애관계에서 결별을 예측하는 관계적 요인

김 금 윤¹⁾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윤 가 현²⁾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미혼의 대학생들이 연애관계에서 경험한 결별의 예측요인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연구 1과 2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 1은 문헌연구와 예비연구를 통해 얻은 결별과 관련된 특성들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결별을 설명하는 요인을 도출한 후 그 요인들이 결별까지의 연애지속기간(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네 가지 요인들은 각각 친밀감과 본인의 언약, 자기기준에 의한 파트너 평가, 금전투자와 부담, 그리고 파트너의 언약이라고 명명했다. 이들 중에서 연애지속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인 요인들은 친밀감과 본인의 언약, 자기기준에 의한 파트너 평가, 그리고 금전투자와 부담이었다. 연구 2는 연구 1에서 도출된 결별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이용하여 현재 연애관계가 진행중인 사람들의 결별예측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 2의 결과는 연애관계가 시작된 초기의 특성이 사귀기 5주 이내의 결별여부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연애관계 개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5주 후와 10주 후)의 특성도 그 이후의 결별여부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해 주었으며, 그리고 연애지속기간에 따라 각 예측시기별로 결별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결별여부의 예측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순히 결별여부의 예측가능성만을 제시하였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함과 동시에 보완해 주었는데, 예를 들면, 예측시기에 따라 결별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연애지속기간을 고려한 상태에서 결별과 관련된 특성을 이해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들은 미혼 남녀들의 발달과업 성취에 도움이 되는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차원에서 논의되었다.

주요어 : 결별, 언약, 연애관계, 친밀감, 파트너 평가, 투자

1) 교신저자: 김금윤,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E-mail: gwoon@dreamwiz.com

2)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론

청소년기 후기의 주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는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Havighurst, 1972). 특히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경험은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결혼파트너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준다(Skipper & Nass, 1966). 청소년들은 연애관계를 통하여 다른 어떤 또래들과의 관계로부터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서적 친밀감을 얻는 반면(Hazan & Zeifman, 1994), 연인과의 결별은 이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들(예, 우울, 무기력, 불안, 불면, 식욕상실, 소외감 등)을 미친다(Larson, Clore, & Wood, 1999; Monroe, Rohde, Seeley, & Lewinsohn, 1999).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파트너를 상실했을 때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다른 어느 경험보다도 고통이나 상처를 심하게 받는다(Bowlby, 1980). 청소년들은 자신이 사귀고 있는 이성을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므로(Shulman & Kipnis, 2001), 이성과 사귀거나 헤어지는 것 모두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연애관계는 사회적 지지를 매우 다양하게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연애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교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한다(Davis & Oathout, 1987).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헤어지게 될 때 이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Simpson, 1987).

예를 들면, 상담소를 찾는 대학생들이 호소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상당수는 연애관계에서 파생된 것들이다(김계현, 1995). 그들은 사귀고 있던 이성과 헤어지면서 경험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진행 중인 연애관계의 위기를 해결하고 싶은 심정에서 카운슬러를 찾아온다. 그렇지만 교제해오던 이성과 결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찾는 대학

생들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던 자들의 일부에 불과하다(Creasey, Kershaw, & Boston, 1999).

대학생들의 상담내용을 분석했던 류진혜와 김재환(1995)에 따르면, 연애관계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이 상담의 초기에 제시되는 주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실제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문제들이 그들이 호소하는 문제의 근원이었다. 또한 김계현(1995)은 대학생들이 주로 정신건강문제, 성격문제, 학업과 진로문제, 그리고 가족간의 문제 등을 상담하러 오지만, 이러한 문제들의 약 70% 정도가 연애관계와 얽혀 있을 정도로 이성문제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를 공개적인 교육의 장에서 다룰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다.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이성교제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성교제뿐만 아니라 학과 공부, 그리고 격심한 경쟁시대에 생존하기 위하여 곧바로 취업준비도 해야 하는 등 숨가쁜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그들은 자신에 맞는 파트너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파트너와의 관계를 형성하여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고민해보거나 이에 대한 자기이해의 필요성을 깨달을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

급변하는 문화의 흐름에 따라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문제를 겪은 후 도움을 청하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들의 발달과업 성취에 도움이 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이형득, 1993). 예방적 차원에서 그들이 이성교제에 관한 자기가치를 확립하도록 돕거나 또는 그들이 연애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들로 인해 겪고 있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실제 이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들이 연애관계에서 경험하는 결별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성교제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도한 연구들은 있었지만(김예정·김득성, 1993; 윤경자, 1994; 홍대식, 1996, 1998, 2000), 미혼자들이 사귀다가 결별한 경우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다.

외국의 경우, 결혼 전 연애관계의 결별여부 예측은 수 십년에 걸쳐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을 통해서 가능해지게 되었다. 우선 파혼한 사람들과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을 비교한 Burgess와 Wallin(1953) 연구는 이에 관한 초창기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곧 이어 1960년대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배우자 선택(mate selection)에 관한 것들이었다(예, Kerckhoff & Davis, 1962).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연애관계 결별과 관련된 특성을 직접적으로 찾는 연구들은 1970년대 중반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예, Hill, Rubin, & Peplau, 1976). 즉, Hill 등(1976)은 연애관계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여 결별한 사람들과 교제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의 차이를 비교했었다.

미혼자들의 결별에 관한 연구들은 결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밝혀냈는데, 연애관계가 시작되어 헤어지게 될 때까지의 지속기간도 하나의 변인으로 드러났다(Felmlee, Sprecher, & Bassin, 1990; Hill 등, 1976; Simpson, 1987). Arriaga(2001)는 연애관계가 오랜 동안 지속된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안정된 행동패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연애지속기간에 따라 연애관계의 진행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연애지속기간이 연애관계의 진행특성뿐 아니라 결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결별과 관련된 특성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별까지의 지속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과, 결별과 관련된 특성들이 연애지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안다면, 그 결과는 연애관계를 시작하는 대학생이나 미혼자들을 위한 발달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응용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될 것이다. 결혼 전 연애관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상대방과의 교제과정에서 예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게 됨으로써 원하지 않는 결별을 예방, 또는 원하는 만남을 결정·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의 이성교제와 연애관계

데이트는 이성교제, 특히 미혼남녀들이 사교적 목적으로 만나는 활동을 일컫는데, 이성교제나 연애관계는 대부분 데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진행된다(홍대식, 2002; Atwater, 1992). 데이트를 경험한 미혼 남녀가 상대방에게 자신들의 교우관계를 두 사람만의 관계로 유지하자는 제안이 나타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 두 사람은 이성교제 과정 중에서 연애관계로 진입하게 된다. 연애관계로 진입하기 이전의 이성교제의 특성은 일단 연애관계로 진입한 이후의 특성과 다르다(Diamond, Savin-Williams, & Dube, 1999).

즉, 연애관계 이전 단계의 사람들은 또래와 부모들의 눈에 띄는 활동들에 함께 참여하며, 또 이를 통해 공공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관심만을 상대방에게 보인다(Diamond 등, 1999). 또 연애관계 이전의 사람들이 서로 데이트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연애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을 커플(couple)이라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과는 다르다. 연애관계로 발전시키지 않은 채로 단순히 장기간 데이트만을 지속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느낄 수 있는 순수한 흥분을 맛보려하거나 여러 명의 이성 파트너들과 데이트를 하면서 성취감이나 정복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연애관계로까지 발전시키지 않는 상태에서의 데이트만을 원할 수도 있다(Diamond 등, 1999).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특징의 하나는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과 자유롭게 교우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작된다. 또 이성교제를 시작할 당시의 교제 목적이 오락적이었던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시간을 강하게 원할 때 연애관계로 접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청소년기의 연애관계가 반드시 결혼을 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또 사귀는 도중에 배우자 선택에 관한 언질이 항상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Roscoe, Dian, & Brooks, 1987). 연애관계에 있는 자들은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그들이 속한 사회에 자신들의 관계를 알리면서 상호언약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그 언약을 지지하는 지원체계를 형성시키기도 한다. 물론 연애관계를 은밀하게 유지시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경우 상호언약은 두 사람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Diamond 등, 1999). 또 연애관계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항상 언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연애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개별적인 파트너라기보다는 파트너와의 형성된 관계를 의식하여 커플로 생각하거나 존재하려고 한다. 이때 오직 한 사람의 파트너라고만 연애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연애관계에 있는 자들의 묵시적인 규약이다(Diamond 등, 1999).

결별을 설명하는 변인

전술한 바처럼 연애관계 결별과 관련된 특성들을 찾는 연구는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그 후 이에 관한 연구들이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는 주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연애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커플 또는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면서 결별한 집단과 연애관계를 지속한 집단의 특성들을 비교하였다. 이들 연구들에서 밝혀진 결별과 관련된 변인들을 친밀감·애착, 파트너에 대한 평가, 투자, 정서적지지 및 자기 노출, 본인 또는 파트너의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 언약, 그리고 문화적 특성의 범주로 묶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친밀감·애착

연애관계에서 형성되는 친밀감은 상대방과 따뜻하면서도 가깝게 결속된 느낌이며(Sternberg & Grajek, 1984), 가깝게 결속된 느낌이란 두 사람이 서로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의된다(Adams, Laursen, & Wilder, 2001). 또 애착은 의미있는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감인데, 이는 의미나 관계의 형성에서 친밀감과 떨어질 수 없다. 즉, 연애관계에 있는 파트너와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그 파트너와 가까워지면서 편안하게 의존하게 되는데, 그 결과 그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행동이 쉽게 나타난다(Collins & Read, 1990).

친밀감과 애착은 Hill 등(1976), Rusbult(1983), 그리고 Simpson(1987)에서 결별과 관련된 특성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이와 관련된 특성들은 파트너에 대한 애착이나 친밀감, 그리고 커플들간에 서로가 느끼는 애착이나 친밀감 정도의 차이였다. 즉 결별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사람들에 비하여 파트너에 대해 친밀감과 애착

을 덜 느꼈으며, 서로간에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애착이나 친밀감 정도의 차이가 컸다(Hill 등, 1976; Rusbult, 1983; Simpson, 1987). 그렇지만 연구자마다 친밀감과 애착을 측정된 내용들이 약간씩 다른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면, Hill 등(1976)은 친밀감과 애착을 파트너에 대한 사랑의 요소로 보았으며, Rusbult(1983)는 애착을 언약의 한 요소로 보고서 파트너와 정서적으로 밀착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또 Simpson(1987)은 친밀감을 파트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 함께 하는 활동의 다양성, 그리고 본인의 생활이 파트너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 등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Hill 등(1976) 그리고 Simpson(1987)은 한 사람과만 사귀는지의 여부를 친밀감 또는 애착의 한 지표로 사용했다.

파트너에 대한 평가

연애관계의 초기에 이루어지는 파트너에 대한 평가결과의 만족여부는 자신이 그 파트너와의 관계를 발달시키고 지속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Kerckhoff & Davis, 1962).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상적인 기준과 파트너가 일치할수록 그 관계가 발전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Rusbult & Buunk, 1993). 파트너에 대한 평가는 Arriaga (2001), Berg와 McQuinn(1986), Hill 등(1976), 그리고 Simpson(1987)에서도 결별과 관련된 특성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진 이와 관련된 특성들은 파트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파트너의 경제적 수준·지적 수준·외모·성격에 대한 만족,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등이었다(Arriaga, 2001; Berg & McQuinn, 1986; Hill 등, 1976; Simpson, 1987).

그들이 측정했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ill 등(1976)은 파트너에 대한 평가를 본인과 파트너 두 사람의 지적능력과 외모의 유사

한 정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지적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는 SAT(Scholastic Aptitude Test)점수이었으며, 외모에 대한 평가자료는 얼굴 사진이었다. 또 파트너에 대한 평가를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사용하여 측정했던 연구들도 있으며(Arriaga, 2001; Berg & McQuinn, 1986), 파트너에 대한 만족도를 경제적 수준, 지적 수준, 외모, 그리고 성격 등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비교한 만족여부를 구체적으로 측정한 연구도 있었다(Simpson, 1987).

투자

연애관계에서 개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즉각적인 보상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유형·무형의 투자를 하는데, 투자는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선물을 주고받거나, 서로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Lund, 1985). 투자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특성들은 파트너와 함께 한 시간, 금전적 투자, 정신적 에너지 투자 등이었는데, 연구결과들의 예를 하나 들면, 결별한 사람들이 지속한 사람들에 비하여 파트너와 함께 하기 위하여 투자한 시간이나 금전, 정신적 에너지 등의 투자 정도가 적은 편이었다(Felmlee 등, 1990; Lund, 1985; Rusbult, 1983).

정서적 지지 및 자기노출

정서적 지지란 누군가를 안심시키고 인정해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며, 자기노출이란 특별한 사적인 이야기 즉, 자신의 가장 내면의 감정이나 경험, 생각들을 타인에게 드러내 놓는 것을 말한다(Corsini, 1999). 정서적 지지와 자기노출은 여러 연구들에서 연애관계의 결별과 관련된 특성들로 밝혀졌는데,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특

성들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정도, 파트너가 자신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정도, 그리고 본인의 자기노출 정도 등이 있다(Berg & McQuinn, 1986; Lloyd & Cate, 1984; Lund, 1985; Rusbult, 1983; Simpson, 1987). 그렇지만 연구자마다 정서적 지지와 자기노출에 대한 관점은 동일하지 않았다. 즉 Rusbult(1983) 및 Lund (1985)는 이들을 투자의 한 영역으로 여겼던 반면, Lloyd와 Cate(1984)는 관계에 대한 개입의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치로 보았다. 또 Berg와 McQuinn (1986)은 자기노출을 사회적 교환의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치로 보았으며, Simpson(1987)은 파트너의 정서적 지지 제공을 파트너에 대한 평가의 한 영역으로 측정하였다.

본인 또는 파트너의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s)은 개인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의 구성체를 뜻하는데, 의미있는 사람이란 그 개인에게 중요하거나 그와 가까운 사람을 말한다(Surra, 1990). 사회적 관계망이 연애관계의 결별과 관련된다는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과 파트너의 사회적 관계망이 결별여부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는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지지 및 방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지지란 파트너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신과 파트너를 “커플”로 인정해주고, 그들의 모임이나 행사에 자신과 파트너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 반면, 방해란 연구대상자가 본인의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 중에 자신의 사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사람들로부터 파트너와 함께 하는 시간의 양을 조절하도록 간섭받았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Felmlee 등, 1990; Johnson & Milardo, 1984; Parks & Adelman, 1983).

언약

청소년기 연애관계에서 나타나는 언약은 시간이 지나도 다른 사람보다도 현재의 파트너하고 만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뜻한다(Rosenblatt, 1977). 언약은 여러 연구들에서 결별과 관련된 특성으로 다루어져왔는데, 이와 관련된 변인들은 본인 또는 파트너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 또는 행동 그리고 본인 또는 파트너가 그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 등이었다(Arriaga, 2001; Berg & McQuinn, 1983; Lund, 1985; Rusbult, 1983). 언약의 측정치로는 본인 및 파트너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 한 사람과만 사귀는지의 여부 그리고 본인 및 파트너가 그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 등이었다(Arriaga, 2001; Lund, 1985; Rusbult, 1983).

문화적 특성

Burgess와 Wallin(1953)은 약혼한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두 사람간의 문화적 차이를 지적하였다. 즉, 종교나 인종, 출신 지역이나 현재 거주 지역 등의 문화적 차이는 두 사람간에 직접적인 갈등을 유발한다고 했는데, 이는 문화적 배경에 의해 결별과 관련된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성교제의 진행단계 중 연애관계에서 경험하는 결별과 관련된 특성들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단순히 결별여부와 관련된 특성을 찾는 연구가 아니라 연애관계 지속기간에 따라 결별과 관련된 특성들이 다른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찾기 위하여 연구 1과 연구 2가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문헌연구 및 예비 연구를 통해 찾아진 결별과 관련된 특성들이 연애관계의 결별을 설명해주는 어떠한 요인들로

뭉이는지, 그 요인들이 연애지속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다르게 나타난다면 다르게 나타난 요인은 어떤 것들인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 1은 연애관계에서 결별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연구대상자들이 보고하는 연애지속기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각 집단간에 요인들이 차이를 보이는지 보고자 했다. 기억회상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애관계가 해소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들만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했다.

연구 2는 연구 1에서 도출된 결별과 관련된 요인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애관계의 결별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종단적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애관계가 시작된 초기의 측정자료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서의 결별여부를 잘 예측하는지, 아니면 연애관계를 시작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한 자료가 그 다음 시기에서의 결별여부를 잘 예측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결별을 예측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함으로써 각 예측시기별 결별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2는 Lloyd와 Cate(1984)의 제안에 따라, 결별에 관한 종단연구들의 중요한 약점으로 지적된 처음 자료수집시의 교제지속기간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애관계를 시작한 직후에 있는 사람, 즉 사귀기 시작하여 2주를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측정시기간의 간격은 너무 길 경우 연구대상자들이 탈락될 가능성이 높고, 또 너무 짧을 경우 결별여부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주로 하였다. 측정횟수는 Berg와 McQuinn(1986)에서는 두 차례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네 차례로 했다. 따라서 연구 2는 초

기 측정 후 5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측정되었다.

연구 1

대학생들의 연애관계의 결별과 관련된 특성들이 어떠한 요인들로 뭉이는지, 그리고 그 요인들이 연애지속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헌연구 및 예비연구를 토대로 개발된 문항들을 가지고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에 소재한 4개 대학교 학생 중 연애관계에 있던 이성과 헤어진 경험이 있는 337명이었으며, 그들의 평균나이는 19.6세($SD = 1.7$)였다. 그들 중에서 남성은 150명으로 평균 나이는 20.3세($SD = 2.0$)이었던 반면, 여성은 187명으로 평균 나이는 19.2세($SD = 1.3$)이었다. 또 남성과 여성간의 나이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1, 335) = 34.7, p < .001$. 연구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으로는 파트너와의 사이에 서로 사귀자는 제안이나 암시 또는 합의가 있었던 자, 그 파트너와 연애관계를 유지하던 동안 최소한 관계의 종반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을 사귀지 않았던 자, 그리고 결별의 경험이나 사귀는 과정에 대한 회상의 부정확성을 줄이기 위해 헤어진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이었다.

사귀기 시작하여 결별할 때까지 지속되었던 기간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단기, 중기, 및 장기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단기집단은 지속기간이 3개월 이하(범위 = 2주 ~ 3개월, $M = 59.4$ 일,

SD = 24.2)에 해당되는 남자 45명과 여자 68명이 있었다. 중기집단은 지속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범위 = 3개월 10일 6개월, $M = 136.8$ 일, $SD = 27.4$)에 해당되는 남자 31명과 여자 49명이 있었다. 장기집단은 지속기간이 6개월 이상 3년 10개월(범위 = 6개월 20일 3년 10개월, $M = 512.6$ 일, $SD = 285.4$)까지에 해당되는 남자 74명과 여자 70명이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사귀기 시작하여 헤어질 때까지의 기간은 평균 271.5일($SD = 281.8$)이었으며, 이를 세 집단으로 구분해볼 경우, 단기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귀기 시작할 당시의 나이는 평균 19.6세($SD = 1.7$), 중기집단의 경우 평균 19.6세($SD = 1.6$), 그리고 장기집단의 경우 평균 19.8세($SD = 1.7$)이었으며, 세 집단간 연령차이는 없었다, $F(2, 334) < 1$.

연구도구

연구대상자들에게 나이, 사귀기 시작했던 시기¹⁾, 결별했던 시기, 그리고 결별에 관련된 특성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된 질문지가 실시되었다. 사귀기 시작했던 시기를 토대로 당시의 연령을 계산했으며, 또 사귀기 시작했던 시기 및 결별 시기를 토대로 사귀기의 지속기간을 계산할 수 있었다.

문헌연구와 예비연구를 통해 추출된 결별과 관련된 특성들은 모두 29개 문항으로 작성되었다. 그들은 문헌연구와 예비연구를 통해 추출된 것들이었다. 그들 중에서 아래에 소개되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문헌연구 및 예비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찾아진 특성들을 묻는 10개 문항, (11)번부터 (17)번까지는 문헌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

지만 예비연구를 통해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된 특성들을 묻는 7개 문항, 그리고 (18)번부터 (23)번까지는 예비연구를 통해서만 얻어진 특성들을 묻는 6개 문항들이었다. 그 29개 문항들 가운데 파트너 특성에 관한 문항들은 파트너의 특성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지각을 측정한 것들이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타인의 사회적 행동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타인의 행동을 자신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Franzoi, Davis와 Young(1985)에 근거했다. 그 29개 특성들은 모두 Likert식 9점 척도의 단일문항으로 평가하도록 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모·성격·지적 수준·경제적 수준 중시. 연구대상자가 사귀기 전 잠재적 파트너의 외모·성격·지적 수준·경제적 수준 각각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묻는 4개의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1점)”부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9점)”까지였다.

(2) 파트너의 외모·성격·지적 수준·경제적 수준에 대한 만족. 파트너의 외모·성격·지적 수준·경제적 수준 각각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다고 지각하는지를 묻는 4개의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1점)”부터 “매우 마음에 들었다(= 9점)”까지였다.

(3) 본인의 자기노출. 연구대상자 자신의 특별한 사적인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노출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전혀 하지 않는 편이었다(= 1점)”부터 “매우 많이 하는 편이었다(= 9점)”까지였다.

1) 연애관계의 시작은 두 사람이 데이트를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사귀자’는 제안이 나타나고 이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뜻한다.

(4) 데이트 비용의 본인 지불. 교제기간 동안 사용한 데이트 비용 중 자신이 부담한 비율의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거의 없었다(= 1점)”부터 “거의 전부였다(= 9점)”까지였다.

(5) 파트너와의 정서적 밀착. 연구대상자 자신이 파트너와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밀착되었다고 여기는지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전혀 가까워지지 않았다(= 1점)”부터 “매우 가까워졌다(= 9점)”까지였다.

(6) 본인의 정서적 지지 제공. 연구대상자 자신이 파트너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지의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전혀 제공하지 못했다(= 1점)”부터 “거의 항상 제공하였다(= 9점)”까지였다.

(7) 파트너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지각. 파트너가 제공한 정서적 지지의 정도에 대한 지각을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 1점)”부터 “거의 항상 제공받았다(= 9점)”까지였다.

(8) 본인의 장기적인 관계지속 의지. 연구대상자 자신이 파트너와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고자 하였던 의지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전혀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1점)”부터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였다(= 9점)”까지였다.

(9) 장기관계 지속의 파트너 의지 지각. 두 사람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하려는 파트너의 의지가 어느 정도라고 지각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전혀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다(= 1점)”부터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것 같았다(= 9점)”까지였다.

(10) 주위의 반대. 파트너와의 사귀에 대해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반대가 있었다고 지각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반대를 심하게 하는 편이었다(= 1점)”부터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 9점)”까지였다.

(11) 파트너로부터의 자기노출 지각. 파트너가 그 자신의 특별한 사적인 이야기를 어느 정도 노출하였다고 지각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전혀 하지 않는 편이었다(= 1점)”부터 “매우 많이 하는 편이었다(= 9점)”까지였다.

(12) 본인의 충실성. 연구대상자 자신이 파트너와의 관계에 어느 정도 충실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전혀 충실하지 않았다(= 1점)”부터 “매우 충실했다(= 9점)”까지였다.

(13) 파트너의 충실성 지각. 두 사람간의 관계에 파트너가 어느 정도 충실했다고 지각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전혀 충실하지 않았다(= 1점)”부터 “매우 충실했다(= 9점)”까지였다.

(14) 이상형과의 일치. 파트너가 자신의 이상형과 얼마나 부합하다고 지각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1점)”부터 “매우 마음에 들었다(= 9점)”까지였다.

(15) 몰입 정도. 연구대상자 자신이 연애 초

기단계에 파트너에게 몰입하였던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전혀 몰입하지 않았다(= 1점)”부터 “완전히 몰입하였다(= 9점)”까지였다.

(16) 시간 투자. 연구대상자 자신이 연애 초기단계에 파트너에게 투자하였던 시간의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거의 없었다(= 1점)”부터 “거의 전부였다(= 9점)”까지였다.

(17) 금전 투자. 연애 초기단계에 자신이 지불한 데이트 비용의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거의 없었다(= 1점)”부터 “거의 전부였다(= 9점)”까지였다.

(18) 데이트비용 지불의 부담. 자신이 지출한 데이트 비용 부담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매우 부담이 큰 편이었다(= 1점)”부터 “전혀 부담이 없었다(= 9점)”까지였다.

(19) 파트너와의 일상적인 대화 원활성.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지각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편이었다(= 1점)”부터 “매우 잘 통했다(= 9점)”까지였다.

(20) 관계유지에서의 자기노출의 이점. 두 사람간에 이루어진 서로의 자기노출이 어느 정도 관계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지각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점)”부터 “매우 도움이 되었다(= 9점)”까지였다.

(21) 데이트 장면의 타인 개입. 파트너와의 데이트가 주로 다른 커플 또는 친구 등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었는지 아니면 두 사람만이 보내는 시간이었는지의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거의 항상 다른 사람이 있었다(= 1점)”부터 “거의 항상 단둘만 있었다(= 9점)”까지였다.

(22) 파트너에게 의존할 수 있는 정도. 힘든 상황에서 자신이 파트너에게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전혀 의지할 수 없었다(= 1점)”부터 “거의 항상 의지할 수 있었다(= 9점)”까지였다.

(23) 공유 정도.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자신의 모든 것(예, 본인 자신, 소유물, 커플 티, 커플 반지, 용돈관리 및 타인과의 인간관계)을 어느 정도 파트너와 공유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반응내용은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 1점)”부터 “거의 모든 것을 공유했다(= 9점)”까지였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2002년 초부터 2003년 초 사이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문헌 연구와 예비연구를 통해 얻은 결별과 관련된 특성들을 Likert식 9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단일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은 연구 목적과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제3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전달한 후, 작성된 설문지를 수거하도록 하였다. 또 반응편파를 줄이기 위하여 설문지의 전달과 수거를 담당한 제3자는 연구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연구대상자들은 심리학 교과목들의 강의시간과 학교 및 학과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와 개별접촉 방법을 통한 자원자들이었다. 모두 359명으로부터

터 자료가 수집되었지만, 이들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불성실하게 했다고 판단된 14명과 사귀었던 기간이 1주일 이하에 해당되는 8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문헌연구 및 예비연구를 통해 찾아진 결별과 관련된 특성들이 어떠한 요인들로 묶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각 요인들의 연애지속기간에 따른 차이여부는 변량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결 과

결별과 관련된 특성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별과 관련된 29개 특성들을 토대로 한 요인분석은 공통요인 분석방법의 하나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했으며, 요인구조의 해석은 Varimax방식의 직각회전을 사용했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eigenvalue)가 1.00이상인 경우가 6개이었지만, Scree test에 의해 요인의 수를 4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요인들이 전체 변량의 91.80%를 설명해준과 동시에 그 요인들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가장 바람직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1은 ‘친밀감과 본인의 연약’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가진 문항들은 공유 정도, 관계유지에서의 자기노출의 이점, 파트너에게 의존할 수 있는 정도, 파트너로부터의 정서적지지 지각, 본인의 자기노출, 파트너와의 정서적 밀착, 본인의 정서적지지 제공 및 본인의 충실성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요인 2는 ‘자기 기준에 의한 파트너 평가’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가진 문항들은 이상형과의 일치, 파트너의 성격에 대한 만족, 파트너의 지적 수준에 대한 만족, 그리고 파트너의 외모에 대한 만족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요인 3은 ‘금전투자와 부담’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가진 문항들은 데이트 비용 지불의 부담과 데이트 비용의 본인 지불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요인 4는 ‘파트너의 연약’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가진 문항들은 파트너의 충실성 지각과 장기관계 지속의 파트너 의지 지각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요인분석의 결과 29개 특성들 중에서 13개 특성들이 요인구조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별 요인들의 연애지속기간에 따른 차이

요인점수는 각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의 총 점수를 의미하며, 각 요인들의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그리고 지속기간에 따른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요인점수의 차이를 검증한 변량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했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애지속기간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요인 1, $F(2, 331) = 21.81, p < .001$, 요인 2, $F(2, 331) = 4.07, p < .05$, 그리고 요인 3, $F(2, 331) = 5.37, p < .01$ 에서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요인 1에서는 단기 집단($M = 44.17; SD = 10.44$)이 장기집단($M = 52.68; SD = 8.27$)보다 그리고 중기집단($M = 47.27; SD = 10.45$)이 장기 집단($M = 52.68; SD = 8.27$)보다 점수가 더 낮았다. 요인 2에서는 중기집단($M = 21.85; SD = 5.74$)이 장기집단보다 점수가 더 낮았다. 요인 3에서는 단기집단($M = 8.42; SD = 4.63$)이 중기집단($M = 9.66; SD = 4.53$)보다 점수가 더 낮았다.

표 1. 결별과 관련된 변인들의 요인분석 결과

변 인	요 인			
	1	2	3	4
공유 정도	.74	-	-	-
파트너에게 의존할 수 있는 정도	.67	-	-	-
파트너로부터의 정서적지지 지각	.61	-	-	-
관계유지에서의 자기노출의 이점	.61	-	-	-
본인의 자기노출	.60	-	-	-
파트너와의 정서적 밀착	.57	-	-	-
본인의 충실성	.50	-	-	-
본인의 정서적지지 제공	.46	-	-	-
외모중시	-	-	-	-
이상형과의 일치	-	.72	-	-
파트너의 성격에 대한 만족	-	.56	-	-
파트너의 지적 수준에 대한 만족	-	.50	-	-
파트너의 외모에 대한 만족	-	.48	-	-
본인의 장기 관계 지속 의지	.39	.41	-	-
파트너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만족	-	.39	-	-
주위반대	-	.32	-	-
파트너와의 일상적인 대화 원할성	-	-	-	-
성격 중시	-	-	-	-
데이트 장면의 타인 개입	-	-	-	-
초기 금전 투자	-	-	.32	-
데이트 비용 지불의 부담	-	-	.87	-
몰입 정도	-	-	-	-
시간 투자	-	-	-	-
경제적 수준 중시	-	-	-	-
지적수준 중시	-	-	-	-
데이트 비용의 본인 지불	-	-	.88	-
파트너의 충실성 지각	-	-	-	.75
장기관계 지속의 파트너의 의지 지각	-	-	-	.66
파트너로부터의 자기노출 지각	-	-	-	.40
고유치	10.55	6.36	2.13	1.61
설명변량(%)	46.93	28.29	9.49	7.19
신뢰도(α)	.86	.68	.89	.71

주. 요인부하량은 .30 이상을 표시했으며 요인추출은 요인부하량 .45 이상(굵은 글씨)을 기준으로 함.

* 요인 1 = 친밀감과 본인의 언약; 요인 2 = 자기 기준에 의한 파트너 평가;
 요인 3 = 금전투자와 부담; 요인 4 = 파트너의 언약

표 2. 연애지속기간에 따른 결별 요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 ANOVA결과

	단기 (n= 113)	중기 (n=80)	장기 (n= 144)	F
요인 1 M(SD)	44.17(10.44)	47.27(10.45)	52.68(8.27)	21.81**
요인 2 M(SD)	21.69(5.24)	24.58(4.62)	23.74(4.58)	4.07*
요인 3 M(SD)	8.42(4.63)	9.66(4.53)	9.02(4.30)	5.37**
요인 4 M(SD)	12.74(3.33)	12.61(3.49)	13.37(2.80)	2.63

요인 1 : 친밀감과 본인의 언약; 요인 2 : 자기기준에 의한 파트너 평가;

요인 3 : 금전투자와 부담; 요인 4 : 파트너의 언약.

* $p < .05$ ** $p < .01$ *** $p < .001$.

연구 2

방법

연구 2는 연구 1에서 추출된 결별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가지고 현재 연애관계가 진행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단적 방법에 의하여 결별여부의 예측이 가능한가를 두 가지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었다. 첫째, 연애관계 초기의 특성에 의한 결별여부의 예측이 가능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연애관계가 시작된 지 2주일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5주 후, 10주 후, 15주 후의 결별여부를 예측해 보았다. 둘째, 연애관계가 시작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의 특성이 결별여부를 예측하는가를 두 가지 상황에서 살펴보았다. 그 중 하나는 연애관계가 시작된 지 5주째에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5주 후(연애관계 시작한 지 10주째)와 10주 후(연애관계 시작한 지 15주째)의 결별여부를 예측해 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연애관계가 시작된 지 10주째에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5주 후(연애관계가 시작된 지 15주째)의 결별여부를 예측해 보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에 소재한 4개 대학교의 학생으로 연애관계가 진행 중이었던 55명이었다. 그들이 연애관계를 시작할 당시의 나이는 평균 19.2세($SD = 1.4$)였다. 그들 중에서 남성들($n = 20$)의 평균 나이는 19.6세($SD = 1.6$) 그리고 여성들($n = 35$)의 평균나이는 19.0세($SD = 1.2$)이었는데, 남녀의 나이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53) = 2.69, p > .05$. 연구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으로는 파트너와의 사이에 서로 사귀자는 제안이나 암시 또는 합의가 있었던 자, 미혼인 자, 현재 사귀기 시작한지 2주일을 넘지 않은 자, 그리고 현재 두 명 이상을 동시에 사귀고 있지 않은 자 등이었다.

연구도구

연구대상자들에게 나이, 성별, 사귀기 시작한 시기, 그리고 네 가지 결별요인을 측정하는 문항

들이 포함된 질문지가 실시되었다. 연구 1에서 도출된 네 가지 결별요인을 측정할 문항들은 모두 Likert식 9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했으며, 각 요인별 문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인 1 ‘친밀감과 본인의 언약’. 공유 정도, 관계유지에서의 자기노출의 이점, 파트너에게 의존할 수 있는 정도, 파트너로부터의 정서적지지 지각, 본인의 자기노출, 파트너와의 정서적 밀착, 본인의 정서적지지 제공 및 본인의 충실성을 묻는 8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친밀감이 강하고 본인의 언약의 정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α 는 연구 1의 전체 표본에서 .84이었다.

요인 2 ‘자기 기준에 의한 파트너 평가’. 이 상형과의 일치, 파트너의 성격에 대한 만족, 파트너의 지적 수준에 대한 만족, 본인의 장기관계 지속 의지 및 파트너의 외모에 대한 만족을 묻는 5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 기준에 의한 파트너 평가가 만족스러웠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요인 2의 내적 일치도 α 는 연구 1의 전체 표본에서 .71이었다.

요인 3 ‘금전투자와 부담’. 데이트 비용 지불의 부담과 데이트 비용의 본인 지불을 묻는 2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데이트 비용의 본인지불이 적었으며 그 지불에 대한 부담이 적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요인 3의 내적 일치도 α 는 연구 1의 전체 표본에서 .64이었다.

요인 4 ‘파트너의 언약’. 파트너의 충실성 지각과 장기관계 지속의 파트너의 의지 지각을 묻

는 2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파트너가 두 사람의 관계에 충실하며 그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고자 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요인 4의 내적 일치도 α 는 연구 1의 전체 표본에서 .74이었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 1에서 확인된 요인을 가지고 15주일 동안 네 차례의 시기에 걸쳐 설문지 조사를 실시한 종단연구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1차 자료수집은 2003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들은 심리학 교과목들의 강의 시간 및 학교나 심리학과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 그리고 개별적인 접촉을 통한 모집에 자원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에게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이성교제에 관한 연구이며, 처음 설문지를 작성한 후 약 5주일 간격으로 파트너와 헤어지지 않고 사귄 경우 세 차례 정도까지의 추가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들에게 정직한 반응이 매우 중요하며 또 익명을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 번째 설문지 조사는 개별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후의 측정은 첫 번째 측정 후 연애관계를 시작한지 5주째, 10주째, 15주째 되던 시기마다 우편으로 또는 개별적인 접촉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 조사 이후 각 측정시기마다 연구대상자를 다시 접촉하였을 때, 연애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확인된 대상자의 경우에는 결별한 시기만을 확인하고 더 이상의 추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첫번째 설문지 조사는 7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탈락자로 처리하여 1차 분석에서부터 제외시켰다. 최종분석의 대상이 된

표 3. 자료수집 시기별 연구대상자 내역

자료수집 시기	지속	결별	결별합
1차(1 2주 사이)	55		
2차(연애관계시작 후 5주째)	46	9	9
3차(연애관계시작 후 10주째)	32	13	22
4차(연애관계시작 후 15주째)	24	8	30

* 2차시기와 3차시기 사이에 결별한 1명의 2차시기의 자료가 분실되어 3차시기부터는 54명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자료는 4차시기 이전에 결별하여 그 시점에서 조사가 종결되었거나 4차시기까지 지속한 사람들의 자료들이었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참여의 대가로 약간의 보상을 받았다.

최종분석의 대상이 된 1차시기 측정의 연구대상자는 55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수와 자료 수집내역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1차시기 측정 후 9명이 결별하여 2차시기 측정에는 46명이 응하였으며, 2차시기 측정 후 13명이 결별하고 1명의 자료가 우편으로 받는 과정에서 분실되어 3차시기 측정에는 32명이 응하였으며, 3차시기 측정 후 8명이 결별하여 4차시기 측정기에는 24명이 응하였다. 각 시기별 탈락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연애관계가 시작된 초기의 특성이 결별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차 측정 시기(연애관계를 시작한 지 2주 이내)의 자료를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2차시기(연애관계 시작 후 5주째, 46 vs. 9), 3차시기(연애관계 시작 후 10주째, 32 vs. 22), 4차시기(연애관계 시작 후 15주째, 24 vs. 30)까지의 결별집단(비교 대상이 되는 시기까지 결별한 대상자를 모두 포함)과 지속집단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애관계가 시작된 후 일정기간이 지

난 시점의 특성이 결별여부를 예측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애관계를 시작한 지 5주째와 10주째의 두 시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준 판별함수분석을 통하여 4개의 결별요인들을 한꺼번에 판별식에 투입하여 이들 4개의 예측변인들의 선형조합으로 이루어진 판별함수가 유의미한가를 확인하였으며, 각 예측변인들이 지속과 결별집단을 구분하는데 기여하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판별함수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연애관계 초기 특성에 의한 결별여부 예측

연애관계가 개시된 지 2주일 이내에 조사한 결별요인 측정치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5주차(46 vs. 9), 10주차(32 vs. 22), 15주차(24 vs. 30)까지의 결별집단들과 지속집단을 정확하게 분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주차에서는 유의미하게 분류되었지만, Wilks' Lambda = .70, $p < .001$, 10주차(5주차 + 10주차 결별집단), Wilks' Lambda = .92, $p > .05$, 및 15주차(5주차 + 10주차 + 15주차 결별집단)의 결별집단과 지속집단의 분류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Wilks' Lambda = .97, $p > .05$. 이는 연애관계가 시작된 초기의 특성이 연애관계가 시작된 지 5주 이내의 결별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기 측정치를 독립변인으로 한 5주차까지의 결별집단과 지속집단에 대한 표준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5주차 전에 결별한 집단과 5주차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한 집단들간에 요인 1, 요인 3, 및 요인 4에 있어서 유의미

표 4. 초기 측정치를 독립변인으로 한 5주차까지의
결별집단 및 지속집단의 표준 판별분석 결과

예측 변인	판별함수와 변인의 상관	Univariate F (1, 53)
요인 1	-.60	8.42**
요인 2	.51	< 1
요인 3	.48	5.93*
요인 4	-.10	5.45*
고유가	.44	
정준상관	.55	
Wilks' Lambda	.69***	

요인 1 : 친밀감과 본인의 언약;

요인 2 : 자기기준에 의한 파트너 평가;

요인 3 : 금전투자와 부담;

요인 4 : 파트너의 언약.

* $p < .05$ ** $p < .01$ *** $p < .001$.

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결별집단($M = 38.85$; $SD = 7.18$)이 지속집단($M = 47.39$; $SD = 8.22$)보다 친밀감과 본인의 언약이 더 약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결별집단($M = 11.33$; $SD = 2.28$)이 지속집단($M = 9.76$; $SD = 1.67$)보다 금전투자와 부담이 더 적었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또 결별집단($M = 16.07$; $SD = 1.16$)이 지속집단($M = 13.74$; $SD = 32.94$)보다 파트너의 언약이 더 강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별을 예측하는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판별함수는 유의미하였다(Wilks' Lambda = .69, $p < .001$).

결별을 예측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설명량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밀감과 본인의 언약' 요인 그리고 '파트너의 언약'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ks' Lambda = .74, $p < .001$, $\eta^2 = .26$). 네 개의 요인들의 비표준화된 판별계수

표 5. 초기 측정치를 독립변인으로 한 5주차까지의
결별집단 및 지속집단의 분류 결과

실제집단	n (사전확률)	예측된 집단	
		결별	지속
결별집단	9(16.4%)	6(66.7%)	3(33.3%)
지속집단	46(83.6%)	0(0.0%)	46(100.0%)
사례의 정확분류비율: 94.5%			

에 의한 판별함수는 " $Z = -1.91 - .10(\text{요인 } 1) + .02(\text{요인 } 2) + .25(\text{요인 } 3) + .24(\text{요인 } 4)$ "이었으며, 이 판별함수에 의해 계산된 값이 1.47에 가까우면 결별집단 또 -.29에 가까우면 지속집단으로 판정한 결과가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되었듯이 결별집단에서는 66.7% 그리고 지속집단에서는 100%를 정확히 분류할 수가 있었으며, 전체 적중률은 94.5%로 나타났다.

연애관계 개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의 특성에 의한 결별여부 예측

연애관계 개시 후 5주차에 조사한 측정치들이 10주차(지속집단 32명 vs. 결별집단 13명) 및 15주차(지속집단 24명 vs. 결별집단 21명)까지의 결별집단들과 지속집단을 정확하게 분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주차, Wilks' Lambda = .71, $p < .01$, 및 15주차(10주차 + 15주차 결별집단)의 결별집단과 지속집단의 분류가 모두 유의미하게 이루어졌다 (Wilks' Lambda = .68, $p < .01$). 표 6과 표 7은 5주차의 측정치를 토대로 한 10주차의 결별집단과 지속집단의 표준 판별분석결과이며, 표 6과 표 7은 5주차의 측정치를 토대로 한 15주차까지의 결별집단과 지속집단의 표준 판별분석결과이다.

표 6. 5주차의 측정치를 독립변인으로 한 10주차의 결별집단 및 지속집단의 표준 판별분석 결과

예측 변인	판별함수와 변인의 상관	Univariate <i>F</i> (1, 43)
요인 1	.83	10.44**
요인 2	.77	7.20**
요인 3	.64	3.72
요인 4	.46	12.02***
고유가	.41	
정준상관	.54	
Wilks' Lambda	.71**	

요인 1 : 친밀감과 본인의 언약;

요인 2 : 자기기준에 의한 파트너 평가;

요인 3 : 금전투자와 부담;

요인 4 : 파트너의 언약.

** $p < .01$ *** $p < .001$.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5주차의 측정치를 토대로 분석했을 때, 10주차 전에 결별한 집단과 10주차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한 집단들간에 요인 1, 요인 2, 그리고 요인 4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결별집단($M = 40.90$; $SD = 15.08$)이 지속집단($M = 53.73$; $SD = 10.69$)보다 친밀감과 본인의 언약이 더 약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결별집단($M = 25.82$; $SD = 8.32$)이 지속집단($M = 31.43$; $SD = 5.40$)보다 자기 기준에 의한 파트너 평가에 대한 만족이 더 낮았으며, 또 결별집단($M = 11.46$; $SD = 3.84$)이 지속집단($M = 14.99$; $SD = 2.75$)보다 파트너의 언약이 더 약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별을 예측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설명량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파트너의 언약’ 요인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ks' Lambda = .78, p

표 7. 5주차의 측정치를 독립변인으로 한 10주차의 결별집단 및 지속집단의 분류 결과

실제 집단	<i>n</i> (사전확률)	예측된 집단	
		결별	지속
결별집단	13(28.9%)	8(61.5%)	5(38.5%)
지속집단	32(71.1%)	5(15.6%)	27(84.4%)
사례의 정확분류비율: 77.8%			

= .001, $\eta^2 = .22$). 그리고 4개의 요인들의 비표준화된 판별계수에 의한 판별함수는 “ $Z = -6.50 + .05(\text{요인 1}) + .00(\text{요인 2}) + .22(\text{요인 3}) + .14(\text{요인 4})$ ”이었으며, 이 판별함수에 의해 계산된 값이 -.98에 가까우면 결별집단 또 .40에 가까우면 지속집단으로 판정한 결과가 표 7과 같다. 표 7에 제시되었듯이 결별집단에서는 61.5% 그리고 지속집단에서는 84.4%를 정확히 분류할 수가 있었으며, 전체 적중률은 77.8%로 나타났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5주차의 측정치를 토대로 분석했을 때, 15주차 전에 결별한 집단과 15주차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한 집단들간에 요인 1, 요인 2, 그리고 요인 4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결별집단($M = 43.54$; $SD = 14.40$)이 지속집단($M = 55.70$; $SD = 29.30$)보다 친밀감과 본인의 언약이 더 약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결별집단($M = 27.42$; $SD = 7.44$)이 지속집단($M = 31.90$; $SD = 5.50$)보다 자기기준에 의한 파트너 평가에 대한 만족이 더 낮았으며, 또 결별집단($M = 12.06$; $SD = 3.71$)이 지속집단($M = 13.97$; $SD = 3.46$)보다 파트너의 언약이 더 약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별을 예측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설명량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파트너의 언약’ 요인만이 영향을

표 8. 5주차의 측정치를 독립변인으로 한 15주차의 결별집단 및 지속집단의 표준판별분석 결과

예측 변인	판별함수와 변인의 상관	Univariate F (1, 43)
요인 1	.76	11.59***
요인 2	.52	5.39*
요인 3	.34	2.38
요인 4	.89	16.06***
고유가	.47	
정준상관	.57	
Wilks' Lambda	.68**	

요인 1 : 친밀감과 본인의 언약;

요인 2 : 자기기준에 의한 파트너 평가;

요인 3 : 금전투자와 부담;

요인 4 : 파트너의 언약.

* $p < .05$ ** $p < .01$ *** $p < .001$.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ks' Lambda = .73, $p < .001$, $\eta^2 = .27$). 그리고 4개의 요인들의 비표준화된 판별계수에 의한 판별함수는 “ $Z = -5.53 + .06(\text{요인 1}) - .06(\text{요인 2}) + .14(\text{요인 3}) + .22(\text{요인 4})$ ”이었으며, 이 판별함수에 의해 계산된 값이 -.72에 가까우면 결별집단 그리고 .63에 가까우면 지속집단으로 판정한 결과가 표 9와 같다. 표 9에 제시되었듯이 결별집단에서는 71.4% 그리고 지속집단에서는 83.3%를 정확히 분류할 수가 있었으며, 전체 적중률은 77.8%로 나타났다.

연애관계가 시작된 지 10주차에 조사한 측정치들이 15주차(지속집단 24명 vs. 결별집단 8명)의 결별집단과 지속집단을 정확하게 분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15주차 전에 결별한 집단과 15주차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한 집단들간에는 네 개의 요인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9. 5주차의 측정치를 독립변인으로 한 15주차의 결별집단 및 지속집단의 분류 결과

실제 집단	n (사전확률)	예측된 집단	
		결별	지속
결별집단	21(46.7%)	15(71.4%)	6(28.6%)
지속집단	24(53.3%)	4(16.7%)	20(83.3%)
사례의 정확분류비율: 77.8%			

즉 결별집단($M = 25.88$; $SD = 8.06$)이 지속집단($M = 53.54$; $SD = 13.18$)보다 친밀감과 본인의 언약이 더 약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결별집단($M = 17.25$; $SD = 3.69$)이 지속집단($M = 31.96$; $SD = 5.77$)보다 자기기준에 의한 파트너 평가에 대한 만족이 더 낮았으며, 결별집단($M = 6.13$; $SD = 2.36$)이 지속집단($M = 10.75$; $SD = 1.59$)보다 금전적 투자와 부담이 더 컸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또 결별집단($M = 9.00$; $SD = 3.74$)이 지속집단($M = 14.75$; $SD = 3.01$)보다 파트너의 언약이 더 약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별을 예측하는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판별함수는 유의미하였다(Wilks' Lambda = .25, $p < .001$).

결별을 예측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설명량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기준에 의한 파트너 평가’ 요인 그리고 ‘금전투자와 부담’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 = .26, $p < .001$, $\eta^2 = .74$). 그리고 4개의 요인들의 비표준화된 판별계수에 의한 판별함수는 “ $Z = -7.92 - .03(\text{요인 1}) + .17(\text{요인 2}) + .40(\text{요인 3}) + .03(\text{요인 4})$ ”이었으며, 이 판별함수에 의해 계산된 값이 -2.88에 가까우면 결별집단 그리고 .96에 가까우면 지속집단으로 판정한 결과가 표 11과 같다.

표 10. 10주차의 측정치를 독립변인으로 한 15주차의 결별집단 및 지속집단의 표준 판별분석 결과

예측 변인	판별함수와 변인의 상관	Univariate <i>F</i> (1, 30)
요인 1	.72	30.94***
요인 2	.67	45.26***
요인 3	.59	39.54***
요인 4	.47	19.42***
고유가	2.95	
정준상관	.86	
Wilks' Lambda	.25***	

요인 1 : 친밀감과 본인의 언약;

요인 2 : 자기기준에 의한 파트너 평가;

요인 3 : 금전투자와 부담;

요인 4 : 파트너의 언약.

*** $p < .001$.

표 11에 제시되었듯이 결별집단에서는 75.0% 그리고 지속집단에서는 100%를 정확히 분류할 수가 있었으며, 전체 적중률은 93.8%로 나타났다.

상기의 결과에 의하면, 연애관계가 시작된 후 5주째의 특성은 연애지속기간이 10주일째까지와 15주일째까지의 결별여부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애관계가 시작된 후 10주째의 특성도 역시 연애지속기간이 15주일째까지의 결별여부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결별을 설명하는 요인을 도출한 후 그 요인들이 연애지속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또 결별을 예측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표 11. 10주차의 측정치를 독립변인으로 한 15주차의 결별집단 및 지속집단의 분류 결과

실제 집단	<i>n</i> (사전확률)	예측된 집단	
		결별	지속
결별집단	8(25.0%)	6(75.0%)	2(25.0%)
지속집단	24(75.0%)	0(0.0%)	24(100%)
사례의 정확분류비율: 93.8%			

이를 위해 두 개의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연구 1에서는 문헌연구와 예비연구를 통해 찾아진 결별과 관련된 특성들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고 그 요인들이 연애지속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연구 2에서는 요인들의 연애관계 초기의 측정치와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측정치에 의한 결별여부 예측가능성과 결별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결별과 관련된 요인들이 연애지속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던 연구 1에서는 네 가지 요인 중 ‘친밀감과 본인의 언약’, ‘자기기준에 의한 파트너 평가’, 그리고 ‘금전투자와 부담’이 연애지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게 나타남으로써 결별과 관련된 요인들이 연애지속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 1의 결과는 회상적인 자료 수집방법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 2에서는 종단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결별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예측시기마다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는 곧 결별과 관련된 요인이 연애지속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1의 결과를 입증한 셈이다.

연구 2에서 연애관계 초기의 측정치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각 시기별 결별여부의 예측을 위해 실시한 판별분석 결과, 연애관계 초기의 특성은

연애관계를 시작한 지 5주 이내의 결별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반면, 10주차와 15주차까지의 결별여부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의 특성에 의한 예측 가능시기를 연애관계를 시작한지 5주 이내라고 정확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막연히 초기의 특성에 의해 결별여부가 예측된다고 한 Berg와 McQuinn(1986)의 결과를 더욱 구체화시킨 것이다. 또 단계적 판별분석 결과에 의하여 '친밀감과 본인의 언약' 그리고 '파트너의 언약'이 연애관계가 시작된 지 5주 이내의 결별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이성교제가 연애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와의 친밀감 형성이 중요하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지지하고 있다 (Brown, 1999; Connolly & Goldberg, 1999; Selman, 1990). 그러나 '파트너의 언약'과 관련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상반되었다. 즉 Arriaga (2001), Berg와 McQuinn(1983), Lund(1985), 및 Rusbult(1983)의 연구에서는 결별한 사람들이 지속한 사람들보다 파트너의 언약이 더 약하게 나타났으나, 연구 2의 결과는 5주차 전에 결별한 집단이 5주차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한 집단보다 파트너의 언약이 더 강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예비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내용으로 설명을 보충할 수 있다. 즉, 본인보다 파트너가 더 강력하게 원해서 사귀게 된 사람들의 경우, 파트너가 연애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 보이는 언약은 매우 강하지만 본인의 동조와 자발성이 이에 뒤따르지 못할 때 두 사람의 연애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었다. 이는 파트너가 관계에 대해 강한 언약을 보였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자발성이 수반되지 않은 파트너의 언약은 관계를 지속시키기보다는 결별하게 하는 특성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 2에서 연애관계가 시작된 지 5주차와 10

주차의 측정치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각 시기별 결별여부 예측을 위해 실시한 판별분석 결과, 연애관계가 시작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의 특성이 그 이후의 결별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 연애관계가 시작된 지 5주차의 특성은 10주차 그리고 15주차까지의 결별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역시 10주차의 특성도 15주차까지의 결별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곧 연애관계 초기의 특성뿐만 아니라 연애관계가 시작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의 특성들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결별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측정치가 됨을 알 수 있다.

단계적 판별분석 결과는 각 시기마다의 결별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들을 밝혀주었다. 연애관계가 시작된 지 10주 이내의 결별여부를 결정짓는 5주차의 중요한 특성은 '파트너의 언약'이었으며, 연애관계가 시작된 지 15주 이내의 결별여부를 결정짓는 5주차의 중요한 특성도 역시 '파트너의 언약'이었다. 10주 이내에 결별한 집단과 15주 이내에 결별한 집단 모두 5주 이내에 결별한 집단과는 달리, 지속집단보다 파트너의 언약이 강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결별한 사람들이 지속한 사람들에 비하여 파트너의 언약이 더 약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Arriaga, 2001; Berg & McQuinn, 1983; Lund, 1985; Rusbult, 1983).

위와 같은 결과는 일단 파트너와의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된 이후부터는 두 사람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파트너의 언약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파트너가 자신에게 보여주는 언약은 연애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파트너와의 애착을 안정되게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Duemmler & Kobak, 2001). 그런데 연애관계에서 나타나는 애착유형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Simpson, 1990)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더 강한 연약을 보인다. 또한 연애지속기간에 따른 연약의 정도는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하여 연애관계의 초기부터 높은 수준의 연약을 보인다(윤경자, 1996).

또한 연애관계가 시작된 지 15주 이내의 결별 여부를 결정짓는 10주차의 중요한 특성은 ‘자기 기준에 의한 파트너 평가’ 그리고 ‘금전투자와 부담’이었다. ‘자기 기준에 의한 파트너 평가’ 요인이 연애관계가 시작된 지 15주 이내의 결별 여부를 결정짓는 10주차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결과는 신체적 매력 등의 파트너의 특성을 이성교제의 초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이에 대한 평가가 이전과 달라졌을 때 결별을 결정한다는 Murstein(1970)의 주장과 일치한다.

‘금전투자와 부담’ 요인의 경우, 5주차에는 금전투자와 그 부담이 적은 경우에 결별한 반면, 15주차에는 금전투자와 그 부담이 큰 경우에 결별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투자 이외의 영역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금전투자의 기능은 초기에는 단순히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이외에 관계유지를 촉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중의 하나로 상대방에게 인식되어 비용 자체보다는 간접적인 관심정도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교제가 지속되어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우리’라는 일체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경우, 이러한 금전투자에 부여하는 의미는 단순한 금액의 의미보다는 관계의 질에 관한 것이 된다. 이러한 관계에서의 질의 변화를 예비연구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설명한다면, 서로 사귀기 시작하여 어느 정도 서로가 가까워질 때까지는 파트너와의 교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아낌없이 투자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의 금전투자와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런가하면

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서로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서로 나눠 부담하려 하거나 데이트 비용지출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의 질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결별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 2의 결과는 특정시기의 결별여부는 초기의 특성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의 특성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그 예측 여부를 결정짓는 특성은 시기마다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별과 관련된 특성이 연애지속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1의 결과를 확인해준 셈이다.

각 시기마다 결별여부를 예측하는 판별분석에서 보여주는 사례의 정확분류비율을 보면, 선행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결별집단에 대한 예측이 지속집단에 대한 예측보다 정확도가 더 낮은 편이었다(Berg & McQuinn, 1986; Lund, 1985; Parks & Adelman, 1983). 이러한 결과는 결별집단의 경우, 연애관계를 스스로 종식시킨 사람과 상대방에 의해 연애관계가 일방적으로 종식된 사람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Hill 등, 1976), 상대방의 일방적인 결별선언으로 원하지 않는 결별을 하는 경우는 본인이 연애과정 중에서 보이는 특성에 의한 결별여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애관계의 결별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한 선행 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사례의 정확분류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연구 2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Parks와 Adelman(1983)에서 사례의 정확분류비율이 87.7%, Berg와 McQuinn (1986)에서 85.4%, 그리고 Lund (1985)에서 75.7%이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초기의 경우 94.5%, 5주차의 경우 77.8%, 또 10주차의 경우 93.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정확분류비율이 비교적 높았던 이유는 연

구대상자를 연애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연애관계가 시작된 초기에 해당된 사람들만으로 제한하여 연애지속기간을 동일하게 통제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동질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제공하는 경험적 자료는 미혼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돕기 위한 발달과정에서의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의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대상자들의 연애지속기간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기기준에 의한 파트너 평가’ 요인은 횡단적인 방법으로 실시된 연구 1뿐 아니라 종단적인 방법으로 실시된 연구 2에서도 연애지속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결별과 관련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미혼의 청소년들이 파트너에 대해 평가를 충분히 하지 못했거나 자신에 맞는 파트너 선택의 기준을 바르게 확립하지 못한 채 연애관계를 개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와 같은 현상의 이유의 하나로 이들을 위한 이성교제에 관한 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남녀의 만남에서 자신에 맞는 파트너 선택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기기준에 의한 파트너 평가’가 연애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결별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청소년들의 연애관계의 증진을 돕기 위해서는 자기이해와 자기 가치관의 명료화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별과 관련된 추후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동질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요인이 결별과 관련된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 1의 결과를 고려할 때, 대학생이 아닌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한 연구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할 때 연구대상자들이 연인을 사귀게 된 동기(예, 친구의 소개로, 동창이라서,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나 연애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성적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지 못했다. 만약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결별을 이해하는 방향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셋째, 본 연구는 한 명의 파트너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의 연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애관계 이전의 단계나 두 명 이상의 파트너와 연애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까지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 한 사람하고만 사귀다는 배타성은 연애관계의 일반적 특징으로서 파트너이외의 사람과 사귀는 것을 데이트부정(dating infidelity)이라고 하는데(Drigoas, Safstrom, & Gentilia, 1999), 추후 연애관계에서 데이트 부정이 나타나는 이유 그리고 그러한 파트너에 대한 대처행동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결별에 관한 더욱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계현 (1995). 거꾸로 배우는 사랑과 결혼. 서울: 김영사.
- 김예정, 김득성 (1993).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의 갈등표출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1, 127-140.
- 류진혜, 김재환 (1995). 대학생의 성(性)에 대한 실태조사. 대학생활연구, 13, 17-55. 한양대

- 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 윤경자 (1994). 대학생들의 혼전 성허용도에 관련된 변인들. *대한가정학회지*, 33, 251-263.
- 윤경자 (1996). 데이트 관계에서 헌신의 역할. *대한가정학회지*, 34, 393-402.
- 이형득 (1993). 가치명료화를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 심리상담 시리즈 I*. 서울: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홍대식 (1996). 한국 대학생의 사랑스타일과 이성 상대 선택준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 81-110.
- 홍대식 (1998). 데이트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 127-140.
- 홍대식 (2000). 데이트 관계의 만족과 몰입에 관련된 특징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223-262.
- 홍대식 (2002). *연애와 결혼 심리학*. 서울: 청암미디어.
- Adams, R., Laursen, B., & Wilder, D. (2001). Characteristics of closeness in adolescence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Adolescence*, 24, 353-363.
- Arriaga, X. (2001). The ups and downs of dating: Fluctuations in satisfaction in newly formed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754-765.
- Atwater, E. (1992). *Adolescence*. Englewood Cliff, New Jersey: Prentice Hall.
- Berg, J., & McQuinn, R. (1986). Attraction and exchange in continuing and noncontinuing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42-952.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London: Hogarth.
- Brown, B. (1999). You're going out with who? Peer group influence on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In W. Furman, B. Brown, & C. Feiring (Eds.), *The development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pp. 291-32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rgess, W., & Wallin, P. (1953). *Engagement and marriage*. New York: Lippincott.
- Collins, N., & Read, S.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s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onnolly, J., & Goldberg, A. (1999).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In W. Furman, C. Feiring, & B. Brown (Eds.), *The development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pp. 266-29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sini, R. (1999). *The dictionary of psychology*. MI: Brunner/Mazel.
- Creasey, G., Kershaw, K., & Boston, A. (1999). Conflict management with friends and romantic partners: The role of attachment and 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 523-543.
- Davis, M., & Oathout, H. (1987). Maintenance of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Empathy and relational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397-410.
- Diamond, L., Savin-Williams, R., & Dube, E. (1999). Sex, dating, passionate friendships, and romance. In W. Furman, B. Brown, & C. Feiring (Eds.), *The development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pp. 175-21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rigotas, S., Safstrom, C., Gentilia, T. (1999). An

- investment model prediction of dating infide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509-524.
- Duemmler, S., & Kobak, R. (2001). The development of commitment and attachment in dating relationships: Attachment security as relationship construct. *Journal of Adolescence*, 24, 401-415.
- Felmlee, D., Sprecher, S., & Bassin, E. (1990). The dissolution of intimate relationship: A hazard mode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3, 13-30.
- Franzoi, S., Davis, M., & Young, R. (1985). The effects of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perspective taking on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84-1594.
- Havighurst, R.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cKay.
- Hazan, C., & Zeifman, D. (1994). Sex and the psychological tether. In D. Perlman & K. Bartholemew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A research annual*, 5 (pp. 151-177). London: Jessica Kingsley.
- Hill, C., Rubin, Z., & Peplau, L. (1976). Breakups before marriage: The end of 103 affairs. *Journal of Social Issues*, 32, 147-168.
- Johnson, M., & Milardo, R. (1984). Network interference in pair relationships: A social psychological recasting of Slater's theory of social re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893-899.
- Kerckhoff, A., & Davis, K. (1962). Value consensus and need complementarity in mate sele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 295-303.
- Larson, R., Clore, G., & Wood, G. (1999). The emotions of romantic relationships: Do they wreak havoc on adolescents? In W. Furman, B. Brown, & C. Feiring (Eds.), *The development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pp. 19-4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loyd, S., & Cate, R. (1984). Predicting premarital relationship stability: A methodological refin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71-76.
- Lloyd, S., & Cate, R. (1985). Attributions associated with significant turning points in premarital relationship development and dissolu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419-436.
- Lund, M. (1985). The development of investment and commitment scales for predicting continuity of 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3-23.
- Monroe, S., Rohde, P., Seeley, J., & Lewinsohn, P. (1999). Life events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Relationship loss as a prospective risk factor for first onset of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 606-614.
- Murstein, B. (1970). Stimulus-value-role: A theory of marital choi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465-481.
- Parks, R., & Adelman, M. (1983). Communication networks and the development of romantic relationships: An expansion of uncertainty reduction theor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0, 55-79.
- Roscoe, B., Dian, M., & Brooks, R. (1987).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views on dating and factors influencing partner's selection. *Adolescence*, 22, 59-68.
- Rosenblatt, P. (1977). Needed research on commitment

- in marriage. In G. Levinger & H. L. Raush (Eds.), *Close relationships: Perspectives on the meaning of intimacy* (pp. 73-86).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Rusbult, C. (1980). Commitment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associations: A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172-186.
- Rusbult, C. (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development (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involv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01-117.
- Rusbult, C., & Buunk, B. (1993). Commitment processes in close relationships: An interdependence analy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 175-204.
- Selman, L. (1990). Fostering intimacy and autonomy. In W. Damon (Ed.), *Child development today and tomorrow* (pp. 409-435). San Francisco: Jossey Bass.
- Shulman, S., & Kipnis, O. (2001).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A look from the future. *Journal of Adolescence*, 24, 337-351.
- Simpson, J. (1987). The dissolution of romantic relationships: Factors involved in relationship stability and emotion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683-692.
- Simpson, J.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71-980.
- Skipper, J., & Naas, G. (1966). Dating behavior: A framework for analysis and an illustr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8, 412-420.
- Snyder, M., & Simpson, J. (1984). Self-monitoring and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281-1291.
- Sternberg, R., & Grajek, S (1984). The nature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312-327.
- Surra, C. A. (1990). Research and theory on mate selection and premarital research relationships in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44-865.

Relational Factors Predicting Breakup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Late Adolescence

Geumwoon Kim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ahyun Yo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consisted of two studies, (Study 1 and Study 2), and was designed to find out some predictors for breakup of romantic relationships that college students had experienced. The purposes of Study 1 were to search for breakup-related variables through both literature review and pilot study, to determine some factors for the breakup among the variables, and to examine any differences of the factors in relation to duration of the romantic relationships. Four factors, that is, IOCF(intimacy and one's own commitment factor), EPOVF(estimated partner with one's own value factor), MIBF(momentary investment and its feeling of burden factor), and CPF (commitment of partner factor) were extracted from 29 breakup-related variables. There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uration of the romantic relationships only for the IOCF, EPOVF, and MIBF. Study 2 was to examine if the four factors could be predictive of breakups for romantic relationships that the respondents have currently engaged in. It was found that the IOCF and CPF measured at initial state of the romantic relationship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the breakups which some of the respondents had experienced within five weeks since the relationships were initiated. It was also found that the CPF measured at five weeks from the initiation of the relationship were initiated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the breakups which they had experienced within ten or fifteen weeks since the relationships were initiat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e EPOVF and MIBF measured at ten weeks from the initiation of the relationship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the breakups which they had experienced within fifteen weeks since the relationships were initiated. With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the development and the application of counseling and education programs for the adolescents were discussed.

Keywords : breakup, commitment, estimating partner, intimacy, investment, romantic relationship